

응답하라! 랜선놀이 '공원' ♪♪ '어흥' 호랑이를 닮은 공원의 친구를 찾아라!!



용맹스럽고 씩씩한 기운이 느껴지는 '호랑이해'가 밝았어요.
공원에서 호랑이를 닮아 이름에 '호랑'이 붙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호랑이의 해를 맞아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 볼까요?



호랑지빠귀

여름에 만날 수 있는 여름철새로 깃털무늬가 호랑이 무늬를 닮아서 '호랑지빠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바닥에서 지렁이 등을 사냥하며 먹이활동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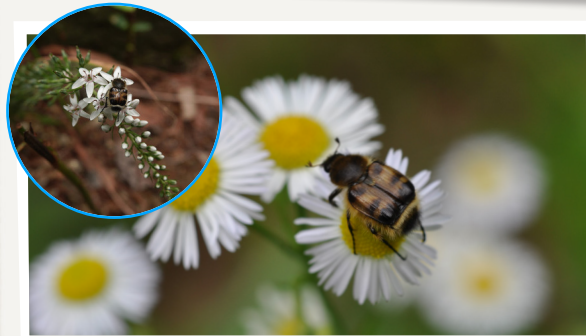
호랑나비

나비 중에서 우리들에게 친숙한 이름의 호랑나비는 날개무늬가 호랑이 무늬와 닮아서 호랑나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산호랑나비와 애호랑나비도 있어요.



호랑거미

거미줄을 친 뒤, 가운데에 흰색 띠줄을 세로로 치고 매달려 지내며, 위험을 느끼면 그물을 강하게 흔들어요.
호랑거미에 비해 몸이 가늘고 길며, 몸에 있는 무늬가 호랑이 무늬와 닮았어요.



호랑꽃무지

줄무늬가 호랑이를 닮아 호랑꽃무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전체적인 무늬를 보면 호랑이가 떠올라요.
다리와 몸의 아랫부분은 검은색이며, 노란색 털로 덮여 있어요.
꽃에서 꽃가루를 먹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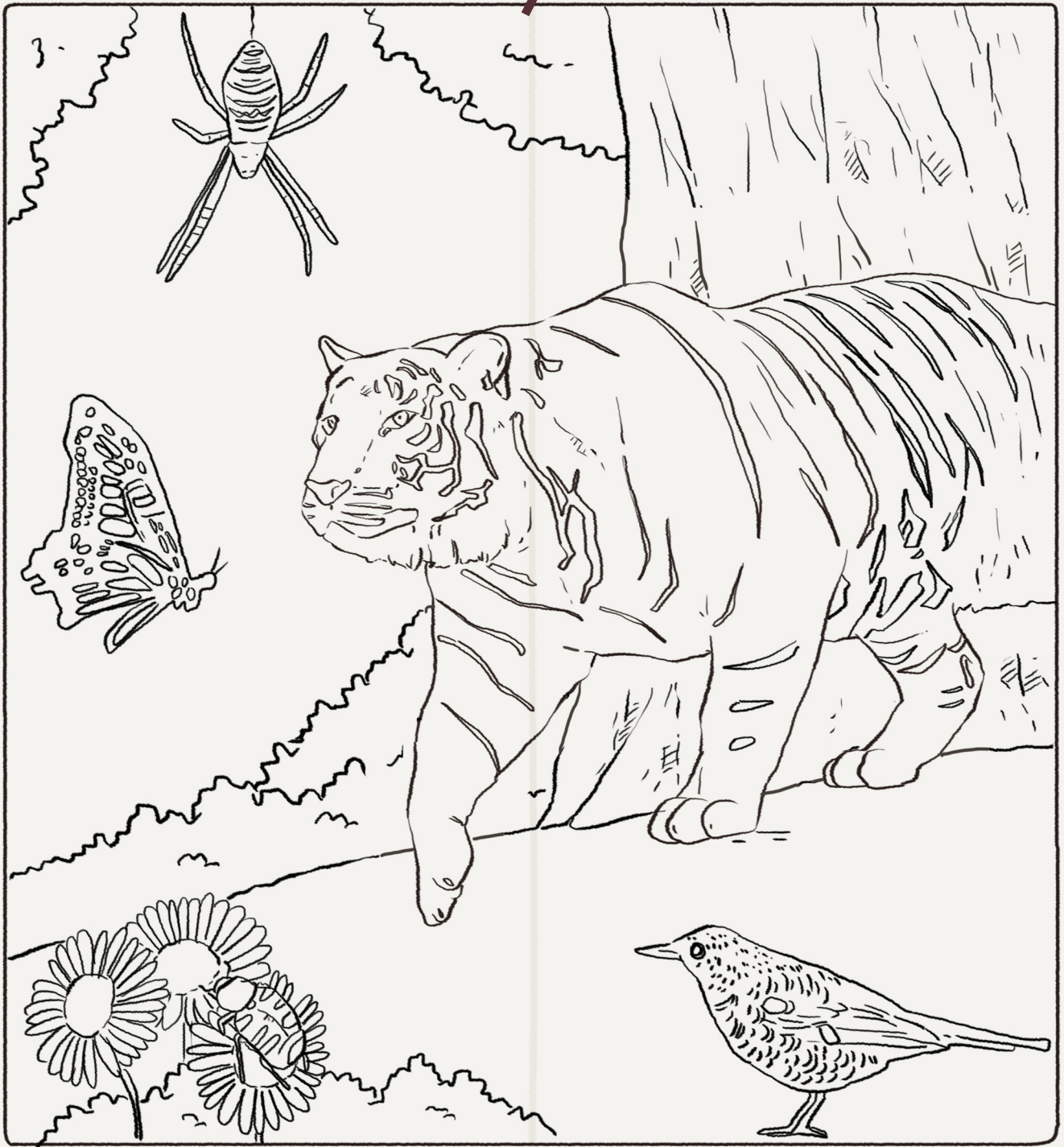
재미있는 '버마재비' 이야기

버마재비는 사마귀의 다른 이름이에요. 범(호랑이)과 닮았다고 하여 '범아재비'에서 '버마재비'가 되었어요.
사마귀의 어디가 범과 닮았는지 궁금하죠?

범과 비슷하게 앞다리를 들고 위협자세를 취하고, 뛰어난 사냥실력으로 곤충중의 범이라는 뜻으로 '버마재비'라고 불린다고 해요.

색칠놀이 '호랑이와 친구들'

호랑이와 친구들을 색칠하며 호랑이처럼 씩씩하고 건강한 2022년 되세요!!



만든이 : 공원여가과 코디네이터 김정희

도움 : 공원여가과 김윤희